

그 사람 지금은

(28) 해남 출신 가수 오기택씨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위도

“뇌출혈로 접은 노래 다시 시작해야죠”

가수로서 성공한 오기택(64)씨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골프에 빠졌다. 1980년 2월 그는 한 친구로부터 골프를 배우 보라는 권유를 받고 골프에 입문했다.

“꽤 부자인 친구가 1년 안에 싱글을 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내기를 한다는 기분으로 골프를 시작했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했으니 자신도 있었지요. 그래서 여의도의 중앙골프연습장에서 홍영표 프로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돼서 싱글을 쳤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정작 내기를 했던 친구와 함께 안양CC에서 골프를 친 날은 95개를 쳤어요”

이렇게 시작한 골프에 오씨는 폭 빠져버렸다. 당연히 가수 생활도 등한시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연례인 자선골프대회에서 6년간 우승하는가 하면 1988년 5회 광주C.C와 1989년 11회 이리C.C 챔피언에 오르기도 하는 등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 내지 2위의 우수한 성적을 냈다.

또 해외대회에까지 나가 1990년 싱가포르 톨레스 오픈 아마추어 우승, 1994년 필리핀 쏘니컵오픈 미드아마추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뿐 아니라 전국체전에는 전남대표 선



가수 오기택(맨 왼쪽)씨가 1989년 9월 제70회 전국체전에 골프 단체전(일반) 전남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한 뒤 동료 선수,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오기택씨 제공)

“몸이 좋아지자 또 다시 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을 좋아하다 보니 술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술 마시고 몇 번 넘어지면서 뇌에 충격을 줬던지, 다시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씨는 여전히 독신이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손수 해결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착하고 좋은 여자들도 많았는데. 인기가 영원히 있을 줄 알았지요.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세상을 몰랐어요. 결혼했다더라면 연말에 바다낚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치료 후에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겠지요”

그는 여전히 재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0여

“인기 좋았을때 세상 모르고 살았죠

결혼 않고 살아온 것 뒤늦게 후회”

약력

- ▲1943년 해남군 북일면 출생
- ▲59년 해남중, 서울 성동공고 졸업
- ▲61년 제 1회 직장인 콩쿠르대회 1등 입상
- ▲63년 '영동포의 밤' 가버린 영아로 데뷔
- ▲79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장
- ▲90년 싱가포르 렉스오픈 아마추어 1위
- ▲2006년 빈아일랜드 가수에올공로상 수상

카스로 당시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의 허리끈을 풀어 소나무에 오른손을 묶어 버렸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프면 술을 씹고 잠을 자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 수백 곡을 불렀다.

낚시배가 온 것은 1월 3일 오전 10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오씨는 제주경찰청 헬기호 긴급 후송돼 제주 한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4일 오후에는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다.

“뇌출혈이지요.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사가 약을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 약은 먹지 않고 있었어요. 해병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던 정신과 꾸준히 닦아온 체력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오씨는 수술 경과가 좋았고 이후 꾸준한 치료로 몸이 나아졌다. KBS 가요무대에서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화를 불렀다.

가요무대 등 방송출연 요청 있지만

아직은 동작이 부자연스러워 거절

수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88년 은메달, 90년 금메달을 땀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아예 프로로 전향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오씨에게 골프와 함께 가장 큰 즐거움의 원천은 낚시였다. 서울 스튜디오 녹음실의 최성락씨로부터 갯바위 낚시를 배우면서 그는 틈틈이 바다 낚시를 다녔다. 특히 연말이면 혼자 추자도 인근으로 갯바위 낚시를 다녔다.

운명의 날인 1996년 12월 30일에도 그는 제주 추자도로 혼자 낚시를 떠났다. 10일간 낚시할 수 있는 야영 준비물을 챙기고 도착한 곳은 상(上)추자의 '염섬'이라는 무인도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50cm 크기의 감성돔 3마리를 낚았다. 그런데 가지고 간 라디오에서 다음날 폭풍주의보를 알렸다.

철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겼다. 그런데 매일 한 번씩 다녀가는 낚시배가 오지 않았다. 31일에도 그리고 새해 첫날에도 배는 소식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잊고 지내고자 두고온 휴대폰이 아쉬웠다.

“2일 아침, 폭풍주의보가 해제됐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배가 곧 오겠지’하며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잡은 물고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하나씩 들어가져 앉아서 말려서 가져갈 생각으로 바닷가로 내려가 고기를 손질한 뒤 텐트로 돌아와서 밤을 안치다가 현기증을 느끼며 바닷가 비탈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말이 안 들으니 자주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오른손으로 소나무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른팔의 힘이 빠지자 나머지 한 손으로 가

50년전 조기파시 열리던 곳  
율도국·인당수 전설도 있어

횃집시가지가 된 격포항에서 전북 최대 섬 위도로 향했다. 14km 떨어진 파장금 선착장에 40여분 만에 도착했다. 위도는 50년 전 까지만 해도 이맘 때 조기 파시(波市)가 장관을 이루 흑산도, 연평도에 버금갔던 곳이다.

어선 700여척이 4천만 마리의 조기를 잡아 파시철에는 접대부가 400여 명이나 됐다고 전해진다. ‘영광굴비’라는 이름은 위도가 영광군에 속했을 때 얻은 이름이라고 한다.

위도는 조선시대 부안 땅이다가 1896년 설군령 지도군 소속이 됐다. 1914년 영광군에 편입된 후 1963년 다시 부안으로 넘어갔다. 고슴도치를 닮아 ‘위도(蜆島)’라 칭했으며, 규모는 해안선 길이 36km, 30개 섬 포함 14km에 달한다. 가장 높은 망월봉(255m)에 오르면 선운산, 고군산, 변산, 칠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위도는 홍길동 율도국과 심청 인당수 전설이 전해지는 섬이다. 1931년 태풍으로 500여 척의 배가 난파됐고, 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3년 서해채취로 침몰로 292명이 희생됐고, 얼마 전에는 방파제 건설과 관련하여 회오리바람이 몰아친 곳이기도 하다.



진리에 있는 위도진 관아.

1682(숙종8)년 군사요충지로 지목돼 첨사(宗3품)가 고군산, 우포, 대경포, 범성포, 금모포, 군산포, 지도까지 관할하여 제2우수영과 같았다. 옛 가리포(加里浦)였던 진리(鎭里) 156-3번지에는 관아(官衙) 건물 한 채가 남아있으며, 셋 곶에 빛돌 6기도 있다. 1982년 유형문화재 101호로 지정됐다.

1872년 지도에는 치도(致島)에서 진리로 접어들어 홍살문을 통과해 2층 누운이 보인다. 좌우에 이청(夷廳)과 사령(使令)청, 그 안쪽에 교(敎)청, 아사, 창고, 객사가 배치됐고, 창고 뒤편에 군기고도 있다. 선소리(船所里)에는 어변정(禦邊亭)과 함께 전선, 병선, 사후선 2척이 그려져 있다.

본섬 마을로 시루미(饅丸味), 소들목(山獐-작은 돼지목), 삼막금(箭幕丸味), 깊은 금(深丸味), 대리(大猪項)가 표기됐고, 정금도와 선소간은 민물 때 수심이 5장(丈)에 달하며, 썰물 때는 육지로 변한다.

심구미 내원암(內院庵)은 속중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선운사의 말사다. 자궁 형국에 탕화, 향나무, 인동초, 백일홍이 유명하다. 풍어기토처로 용왕각 역할도 했던 터로 전해진다.

대리 따뜻이는 풍어기원 민속으로 1978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됐다. 진리 보건소 뒷편에는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 숲속에 담장이 있고, 근처에 흰색상사와 군락지도 있다.

현재 800호 1천500명이 살고, 40척 배가 멀치, 꽃새우, 홍합, 아구, 쭈꾸미, 우럭을 잡아 약 1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린다. /김경수(사) 향토문화진흥원장

세계스타·세기보청기

세계적 권위 인증 품질 보증! FDA, ISO 9001, CE 0120, KGMP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www.segistar.co.kr  
대리점 사업본부 02)538-9388

무료상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십시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세기보청기 본사 | 02-538-9388  
부산 중구 동래로 111 세기보청기 부산점 | 051-222-0100  
대구 동구 동촌로 111 세기보청기 대구점 | 053-222-0100  
대전 중구 대성로 111 세기보청기 대전점 | 042-222-0100  
광주 동구 동촌로 111 세기보청기 광주점 | 032-222-0100  
인천 중구 동촌로 111 세기보청기 인천점 | 032-222-0100  
대전 중구 대성로 111 세기보청기 대전점 | 042-222-0100  
부산 중구 동래로 111 세기보청기 부산점 | 051-222-0100  
대구 동구 동촌로 111 세기보청기 대구점 | 053-222-0100  
대전 중구 대성로 111 세기보청기 대전점 | 042-222-0100  
광주 동구 동촌로 111 세기보청기 광주점 | 032-222-0100  
인천 중구 동촌로 111 세기보청기 인천점 | 032-222-0100